

名前:

처음에 텔레비전이 발명되었을 때, 이제
영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
이 있었다. 그러나 영화는 아직은 문화의
핵으로서 불리우고 있다. 그리고 몇 년 전
인터넷소설이 인기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
종이책이 더 이상 많이지 않을 거라고
말했으나, 아직 종이책은 존재한다. 이
두 가지의 케이스는 인터넷의 사용에 따른
신문과 잡지의 변화에 커다란 의미를
가지고 있다. 그것은 무엇을 매개체로
삼느냐에 따라 그 안에 담겨진 말들이
이 달라진 모습을 띠는 것이다. 인터
넷과 종이, 텔레비전과 영화관은 다양한
접근 방법을 띄면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
는 환경이 변해간다. 예를 들면, 같은
영상에 관한 것이라도, 젊은 이들은 테이
프를 위해 영화관을 줄을 찾는 반면에
텔레비전은 다양한 채널 대의 가족들을
대상으로 한다. 인터넷소설의 경우는 일
반소설의 독자들과 다르게 여종교생이라느

특이한 집단의 주목자층은 양성해냈다.
똑같은 소설이라고 해도 그 접근 방법
의 특이성에 의해, 주로 그것은 사용하
는 구독자층과 그 특의 입맛에 맞는 내
용들로 바뀌어 간 것이다. 잡지나 신문을
같다고 생각할다. 이름은 같지만 가계
에서 파는 것은 읽느냐, 인터넷에서 가
게 접속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 그 내용
도 변라하게 되며, 그것은 필요로 하는
주소체중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
된다. 요즘 인터넷 신문이 자극적인
기사를 비난받는 일이 생기는 것도 그
결과로서 생각된다. 인터넷 안에서 소
계 얻을수 있는 다른 정보들과 경쟁하
기 위해서 더욱 자극적인 내용으로 갈수
밖에 없다는 것이다. 이러한 과정에서
인터넷 잡지, 신문과 보통의 그것들은
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둘은 각각
의 개성을 가지고 함께 존재해야 한다
고 생각한다.